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 민간기관의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 수탁기관 :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수탁방법 : 공모선정
- 위탁사무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문기구” 및 “협의회” 운영
 - 기타 도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검토의견

- 이번 동의안은 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민간기관의 전문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충청북도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충북의 경우 충북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창업 동아리 지원 등 청년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담당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에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안전망 확보 없는 청년창업 지원은 단기간에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으나 높은 폐업율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과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붙임: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